

제언

# 돼지 콜레라 등의 박멸을 위한 단계별 계획을 제안한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 조건과 사회적 여건이 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다.

그 좋은 본보기가 지난 해 3월 우리 나라와 일본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했고 수년 전 네덜란드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던 사례들이다.

따라서 이들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박멸시킬 수 있다 하더라도 검역 소홀과 밀수 근절 여하에 따라서 청정화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하고 공방단도 동시에, 혹은 잠정적으로 해체시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히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을 선진국에서 8~10년에 걸쳐서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 부었는

가 하는 것이다.

필자가 보건대 적어도 정부의 굳은 의지와 전문가의 현명한 판단 및 사양가의 적극적인 협력이 완벽하게 일체화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심사숙고해 본 돼지콜레라 등의 박멸 프로그램을 제시해 본다.

**제 1단계 : 항체 보유율 100% - 감염률 0%화 단계**

1. 돼지콜레라는 확실한 프로그램에 따라 100% 접종하여 발병률은 물론 감염도 보유율을 0%로 한다.

2. 기존의 방역 기구 (가축위생 방역 지원 본부 - 지역 "공동 방역단")을 상설기구로 승격시키고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한다.

3. 주기적인 혈청검사(3개

홍 문 표 수 의사  
문성농장대표

▶지금 정부에서는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단하고 공방단도 동시에, 혹은 잠정적으로 해체시킬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간단히 박멸할 수 있는 질병을 선진국에서 8~10년에 걸쳐서 막대한 돈과 인력을 쏟아 부었는가 하는 것이다.

아래 사진은 경기 양평시 축산 공무원이 농가들에게 백신을 무료로 나눠주는 모습.



때는 2 단계로 돌입한다.

**제 2단계 : 지역적 부분 백신 중단 단계**  
- 임상적으로 발병 여부 증명 (3년차)

월 마다)와 질병 예찰을 통하여 접종 여부를 감시하고 오제스키 감염 농장과 감염돈을 색출하여 청정화 하도록 한다.

4. 밀수를 근절하고 수입육과 부산물 및 사료의 검역을 철저하게 하여 감염원의 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한다.

- 장기적인 숙제.

5. 휴전선에 방역 벨트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6. 국내외 가축 질병 정보를 대중 매스컴에 자주 떠올려서 비양축가들의 관심까지 모을 수 있도록 한다.

7. 혈청 검사와 살처분 보

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다.

8. 돼지 콜레라 발병 농장과 오제스키병 감염 농장에는 방역 요원을 상주시켜 환돈이나 감염돈을 살처분하고 동거돈의 지정된 도축장 외로의 반출을 철저히 단속한다.

9. 발병을 숨기거나 고의적인 밀반출이 발각되었을 때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한다.

10. 성실 신고한 농장과 신속하게 대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높이고 포상하여 사기를 진작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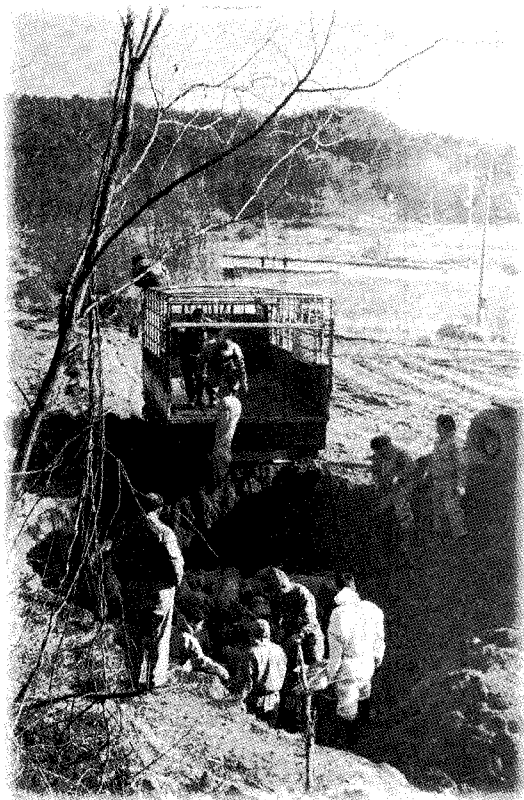
11. 2년 이상 발병이 없고 항체 보유율이 90% 이상일

1. 시험적으로 발병 여부를 진단하는 단계로서 양돈장 분포가 밀집되어 있지 않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가칭 '방역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지역 단체장에게 추천한다.

2. 단체장은 몇 개 농장을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20~50%는 접종하지 않고 발병과 항체 여부를 관찰, 확인하게 한다.

3. 방역요원은 이들 농장에 15일에 1회 이상 예찰하고 3개월에 1회씩 채혈 검사하여 발병 징후를 확인한다.

4. 동시 다발적으로 발병하



◀99년 8월 경기 용인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로 돼지를 매몰 처리하고 있다.

거나 감염 항체가 여러 농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제1단계로 되돌아 간다.

5. 통제가 가능할 정도로 소수의 농장에서 감염 항체가 확인되거나 발병할 경우 미접종돈은 모두 살처분하고 10km 내의 인근 농장은 모두 보강접종을 한다.

6. 발병 농장에는 방역요원 등을 상주시켜 소독과 폐기물, 시체 등의 처리를 주관하고 감염축 및 동거돈의 이동을 감시한다.

7. 1년간 발병이 없거나 몇 개 감염 농장의 폐쇄 등의 처리가 잘 되어 더 이상 확산이

라서 30~100% 접종 중단하도록 하고 번식 모돈의 보강접종은 중단한다.

3. 농장 밀집 지역이나 오제스키 상재지역, 기타 발병 위험지역은 중반기 까지 백신 중단을 유보한다.

4. 야생 멧돼지 등에서도 항체 검사를 지속한다.

5. 산발적인 발병이 있을 때는 발병 농장을 중심으로 500m 반경내의 돼지는 살처분 하고, 반경 10~20km내의 돼지는 집중적으로 차단방역을 하면서 세심하게 감시한다.

6. 발병이 폭발적으로 확산

없이 종식된 지 6개월 이상이 되면 3단계로 돌입한다.

### 제 3단계 : 부분적 접종 중단 전국 확대 (4년차)

1. 전국적으로 백신 중단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한다.

2. 규모에 따

되거나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일 때에는 1 단계로 되돌아 간다.

7. 발병이 없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경우 접종 중단 비율과 농장 수를 점차 확대하여 4단계로 돌입한다.

### 제 4단계 : 본격적 접종 중단 (5년차)

1. 비상용 백신 외에 시판 혹은 무상 공급을 전면 중단한다.

2. 오제스키병 상재지 등 발생 위험지역에서는 오제스키병 감염돈을 적극적으로 색출 도태하고 감수성 돼지를 동거 사육시켜 보거나 접종 중단을 시도해 본다.

3. 국제 수역국(OIE)에 돼지 콜레라, 구제역 등의 비발생 선포를 신청한다.

4. 수입육 및 사료에 대한 검역을 더욱 강화하고, 휴전선을 따라 설정한 방역 벨트를 통과하는 야수들을 철저히 검색하여 재발을 철저히 봉쇄한다. **양도**

특집 ●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중단 문제점이 없을까?